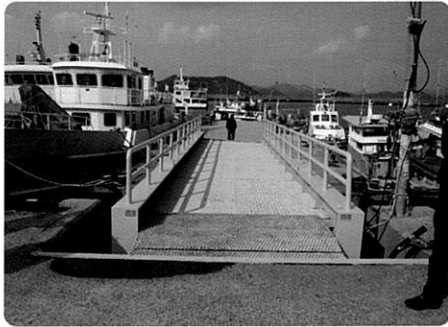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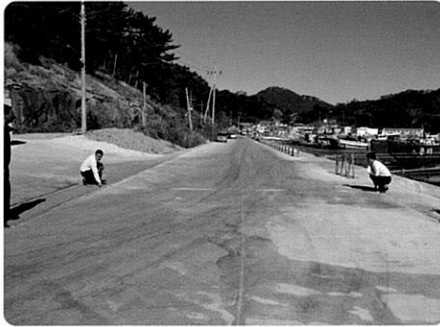
「2012년 국가어항시설물 유지보수사업」공사분야 다각화를 통한 어항이용 불편해소 및 안전도 제고



▲ 서망항 부잔교 보수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금년 1월 농림수산 식품부로부터 「2012년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아 현장 설계조사, 사업별 설계서 작성, 사전 설계 서검토 승인, 발주 등의 과정을 거쳐 어항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내구 연한 증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국가어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공사를 착공하였다.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동해지역 대진, 거진, 공현진, 아야진, 대포, 수산, 남애, 사천진, 강릉, 금진, 궁촌, 장호, 임원, 죽변, 현포, 대보 이상 16개항, 남해지역 청산도, 보옥, 여호, 풍남, 발포, 마량, 시산, 삼덕이



▲ 삼덕항 호안도로 보수

상 8개항, 서해지역 수품, 서망, 격포 이상 3개항 등 총 27개항 51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특히 올해 잦은 태풍으로 파손된 6개항에 대한 부잔교 보수, 물양장, 배후부지, 호안도로의 포장보수 등을 완료함으로써 어민들의 어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시공방법개선을 통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였으며, 방파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방파제 안전시설물(경고표지판, 위치표지판, 인명구조함, 진입차단문)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동해지역 13개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였다.

협회는 올해는 안전시설물(모서리보호공, 방충재, 차마이 등)의 보수에만 국한하지 않고, 노후된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주민들의 민원해소, 방문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어항 유지보수 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어항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진입차단문



▲ 경고표지판



▲ 인명구조함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와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어촌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는 방기혁 회장(右)과 김호연 회장(左)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2월 2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와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어촌발전에 필요한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앞으로 어촌관광활성화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어촌체험마을 탐방활동, 어촌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깨끗한 낚시터 환경조성 및 국내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낚시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2월 2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주) 한국낚시연합과 깨끗한 낚시터 환경조성 및 국내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쾌적한 생태환경 및 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및 낚시터환경보전·교육 및 각종 예방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2년 사천시, 강릉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완료

사천시 늪도 및 강릉시 경포대 주변수역 2,719ha 환경개선 및 연근해 침적폐기물 67톤 수거



▲ 사천시 폐기물 수거작업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2월 7일 사천시 및 강릉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각각 완료했다. 총사업비 약 2억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들은 사천시 늪도~신수도, 강릉시 경포대 주변수역 2,719ha의 면적에서 67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사천시 늪도 및 신수도 주변수역과 강릉시 경포대 주변수역의 어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항환경개선 효과조사 모니터링 용역 완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2월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어항환경개선 효과조사 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5개 어항을 대상으로 어항청소선의 어항환경정화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모니터링 분석결과 환경개선 지표인 저질의 COD는 12.7%의 개선율을 나타내었으며, 수질 COD의 경우 5.3%의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항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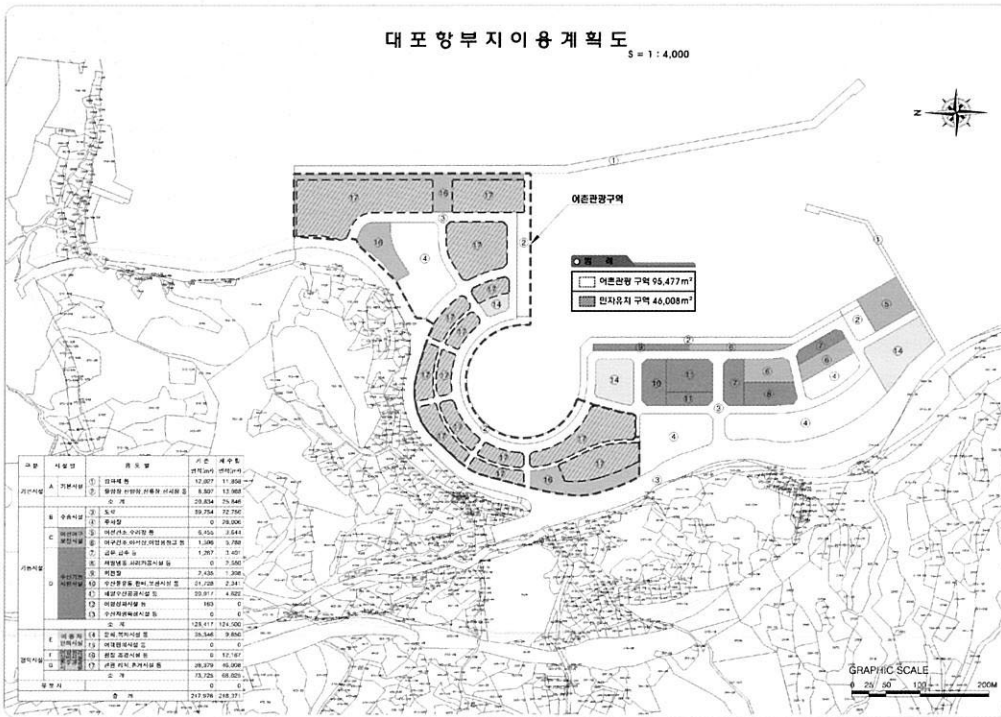


▲ 저질조사



“어항” 어촌관광을 위한 새로운 시도

수산·관광·문화·상업기능을 겸비한 수산분야 6차산업 공간으로 활용 전국 103개 국가어항 부지 이용계획 재정비



▲ 대포항 부지이용계획도(어촌관광구역 설정 대상항)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103개 국가어항 부지 576만㎡에 대한 이용계획을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어항부지는 어선의 작업장인 물양장 등 기본시설 이외에 어구아적장과 수산물을 판매하는 난전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관광시설과 주차장 등을 확대하였고, 주 이용자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구 보관창고, 어선수리장 등을 늘렸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항이 되도록 어항 정화시설을 확대·정비한 것이다

최근 국가어항의 기능이 수산물의 생산·유통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상업 등 복합기능을 겸비한 수산분야 6차 산업의 신성장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이전의 부지이용계획은 수산업기능 위주로 수립되어 어촌·어항을 찾는 관광 수요증가 등에 따른 주차장과 친수·휴식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국가어항 부지이용계획 재정비」에서는 현실과 미래수요 등이 반영된 어항부지 이용계획과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크게 4가지를 개선한 것이다.

우선 어항내 복합기능시설 도입 등 최근의 여건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토록 기존 세분화된 17개 용도를 7개 용도로 통

합·재정비 했으며, 어항별 입지여건과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중심형, 수산·관광복합형, 도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특화하였다.

또한, 어업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항내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고 관광·레저시설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였다.

어항내 준설토투기장 등 여유부지 중 일부를 어항활성화 차원에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유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어류양식장 또는 관광·레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여유부지 면적이 4,000㎡ 이상인 선진포항 등 14개 항 228,541㎡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어항부지 이용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제공하고 어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포항 조감도